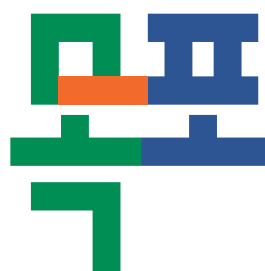


평화 경제의 중심,
위대한 목포시대

낭만항구

ROMANTIC PORT MOKPO



시정소식

2020년 12월 Vol.81



| 목포시 브랜드 슬로건 |



목포의 정체성과 비전이 담긴 브랜드 디자인

‘낭만항구’는 목포의 지리적 특성과 문화적 감성을 상징하며,
해양 관광도시로 도약하고자 하는 목포시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CONTENTS

2020년 12월 Vol.81



Cover Story

무한한 경쟁력을 품은
목포, 변화의 중심에 서다

04 기획특집

- 숫자로 보는 목포시 2020년
- 목포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 10개의 키워드로 살펴본 목포의 변화
 - 청렴도 수직 상승, 행정 투명성 높아졌다
 - 목포시, 대한민국 도시대상 최우수상 쾌거
 - 신재생에너지산업의 거점도시가 된다
 - 수산식품산업 육성, 전국 수산식품산업의 거점도시로 도약
 - 글로벌 명품 관광도시로 도약하다
 - 미디어 속 목포가 핫!하다
 - 섬의 가치 확대! 목포 미래, 섬에서 묻고 답하다
 - 예방목포, 문화도시라는 날개를 달다
 - 한국관광공사, 비대면 관광지 100선 선정
 - 맛의도시 목포,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다

25 뉴스 in 목포

- 시정소식

30 목포 더하기+

- 의정소식
- 우리동네소식
- 빛나는 2020년 수상·공모사업 선정 실적

37 통(通)하는 목포

- 시민참여마당



발행처 목포시 편집인 공보과 발행일 2020년 12월
주 소 (우)58613 목포시 양을로 203 전 화 061)270-8539
목포시정소식지는 <http://www.mokpo.go.kr>에서도 볼 수 있으며,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목포시의 공식적인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www.facebook.com/mokpo.kr
[instagram.com/mokpocity_story](https://www.instagram.com/mokpocity_story)
blog.naver.com/mptour123
story.kakao.com/ch/mokpocity
youtube.com/c/mokpocity

| 숫자로 보는 목포시 2020년 |



1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대상에서 50만 미만 도시 중 1위를 차지했다. 대양산단 분양률 향상 등 경제지표가 크게 개선된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2 2020년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했다. 전라남도에서 가장 높은 등급으로 2년 연속 청렴도가 상승했다.

8.5% 지난 9월 지방채 121억원을 상환해 예산대비 채무 비율이 지난해 9.5%에서 8.5%로 감소했다.

86.7% 대양산단 분양률로, 올해 목표였던 85%를 초과했다. 129개 기업이 1,940억원을 투자했고, 90개 기업이 가동·건축 중이다.



1,000억 2024년까지 1천억원이 투입될 정부의 대한민국 4대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됐다. 관광거점도시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친 상태다.

1,089억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의 총사업비로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면제돼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이다.

2,174억 국가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2,174억원이 투입되는 목포신항 해상풍력 지원부두와 배후단지가 반영됐다.

8,916억 2021년 정부 예산에 목포시 관련 국비가 8,916억원 반영됐다. 정부예산안 6,577억원보다 2,339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목포시 역대 최고액이다.



높아진 목포시 경쟁력

“목포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도시브랜딩& 마케팅 전력투구, 각종 경제지표 호전, 도시대상 수상

2020년 목포는 대내·외적으로 뜻깊은 성과를 거뒀다. 내적으로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도시대상’ 수상, 국민권익위에서 평가한 청렴도 역시 급상승했다. 외적인 성과로는 목포항의 서남권 경제중심 항만 재편과 3대 미래 먹거리 산업 토대 마련, 13개 공공기관 유치 등이 꼽힌다. 특히 도시대상 수상은 그동안 도시 브랜딩과 마케팅에 힘써온 결실이기에도 의미가 남다르며, 각종 경제지표가 크게 나아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청렴도 수직상승...행정 투명성·공정성 강화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목포시 수직상승이 주는 가장 큰 의미는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다. 무엇보다 내부청렴도 평가의 핵심인 인사분야와 외부청렴도의 공사분야에서 부패 경험률이 ‘제로’였다는 점이 높이 평가 받았다.

대양산단 분양 목표 초과달성...경쟁력 상승 결과

목포시 경쟁력 상승의 방증은 대양산단 분양에서도 명쾌하게 드러난다. 코로나 이후 경기침체 속에서도 올해 목표인 85%를 초과한 수치인 분양률 86.7%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2020년 전국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1위 목포” 선정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국 228개 지자체와 지역소재 기업 6천 여 개를 대상으로 한 ‘2020년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 결과 목포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1위를 차지했으며, 기업수요에 맞춘 지원·규제 개선으로 기업 체감도 평가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공기관 13곳 유치...인구유입 활로 찾는다

13개의 공공기관 유치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로 꼽힌다. 고하도에 설립되는 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을 비롯해 구 목포경찰서 용해동 부지에도 법무부 스마일센터, 통일부 호남권통일플러스센터 등 공공기관 신설 공사가 진행 중이다.

목포항 재편, 3대항 6대도시 명성 되찾을 서남권 경제중심 항만 도약

목포항은 권역별로 특화된 혁신적·현대적 기능을 갖춘 ‘서남권 경제중심 항만’으로 도약한다. 해상풍력 지원, 친환경 선박, 레저·관광, 여객 부두 등으로 항만기능이 다각화 된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곳은 남항이다. 친환경 자동차는 전 세계 여러 국가가 기술개발 등 전력투구하고 있지만 친환경 선박은 아직 미개척 분야다. 남항에 들어설 친환경 선박 클러스터는 ‘목포판 그린 뉴딜’이다.

국내 최초 문학박람회 개최... ‘예비 문화도시 지정’ 기대감

목포의 풍부한 문화예술 자원, 우수한 역량을 활용해 연말 ‘예비문화도시 지정’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내 최초 문학박람회 개최’라는 카드도 꺼내들었다.

내년 국비 8,916억 반영...사업 추진 동력 확보

전 방위적으로 국비 확보 활동을 펼쳐 2021년 국비 예산을 113건에 8,916억원을 확보했다. 정부예산안 6,577억원보다 2,339억원이 증액됐으며 역대 최고액으로 사업 추진에 동력을 얻고 있다.

10개의 키워드로 살펴본 목포의 변화

목포는 신재생에너지산업, 수산식품산업, 관광산업 등 향후 목포를 먹여 살릴 3대 미래 먹거리를 마련해 변화와 위기에 강하고, 국내를 넘어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탄탄한 백년대계의 기틀을 마련했다. 제2의 개항을 향한 민선7기 목포호는 국가정책과 연계해 순풍에 돛을 달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1 청렴도 수직 상승 행정 투명성 높아졌다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목포시 수직 상승이 주는 가장 큰 의미는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다. 무엇보다 내부청렴도 평가의 핵심인 인사분야와 외부청렴도의 공사분야에서 부패 경험률이 ‘제로’였다는 점이 높이 평가 받았다.

>> 8페이지

2 목포시, 대한민국 도시대상 최우수상 쾌거

3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목포만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가고 있는 목포는 전국 229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도 지속가능성을 인정받아 50만 미만 중소도시에서 1위를 차지했다.

>> 9페이지

3 신재생에너지산업의 거점도시가 된다

신항은 해상풍력 부품 생산단지과 지원부두가, 대양산단은 부품생산단지와 지원센터가 조성된다. 목포 남항은 연간 최대 2조 1천억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갖는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의 연구거점이 들어서며, 목포는 세계 친환경 선박시장을 빠르게 선점해 기술주도권을 쥐고 신재생 에너지산업을 견인하게 된다.

>> 10~11페이지

4 수산식품산업 육성 전국 수산식품산업의 거점도시로 도약

2020~2029 중장기 목포시 수산발전 기본계획으로 수산업 발전의 청사진을 완성한 목포는, 2022년 완공될 수산식품수출단지를 핵심 발판으로 삼는 한편, 김과 어묵을 대표상품으로 내세워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전국 제1의 수산식품도시로 도약하고자 한다.

>> 12~13페이지



5 글로벌 명품 관광도시로 도약하다

올해 총 사업비 1천억 원이 투입되는 4대 관광 거점도시에 선정된 목포는 서울과 제주도 중심의 관광 물줄기를 목포를 비롯한 서남권 중심으로 전환했으며, 다양한 관광, 교통, 숙박 시설 등의 인프라를 구축해 세계가 주목하는 관광도시로 도약해 가고 있다. >> 14~16페이지

6 미디어 속 목포가 핫!하다

세계가 목포를 주목하고 있다. 코로나로 국내 관광이 얼어붙은 상황을 기회로 삼아 미디어 홍보에 주력한 결과, 유튜브, 드라마, 예능 등 인기검색어와 순위에 오르며 연일 화제의 중심이 되고 있다. >> 17페이지

8 예향목포 문화도시라는 날개를 달다

2019년 목포만의 문화컨텐츠인 가을페스티벌의 성공적 개최에 이어 예비문화도시로서 첫발을 딛는 2021년, 목포가 새롭게 선보이는 카드는 문학이다. 문학박람회라는 독창적 행사를 통해 문화도시의 꽃을 활짝 피운다. >> 20~21페이지

10 맛의도시 목포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다

전국 최초로 맛 브랜드를 선점한 목포는 올해 간편음식 주전부리 3종 개발과 함께 다양한 목포 맛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한민국 대표 식도락 성지 목포는 이제 세계로 눈을 돌리고 있다. >> 24페이지

7 섬의 가치 확대! 목포 미래, 섬에서 묻고 답하다

목포는 2019년~2021년 3년 연속 달라도, 외달도, 울도, 고하도까지 유인도서 전체가 어촌 뉴딜 300 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현재 섬의 가치를 높이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 중이며, 세계 섬엑스포와 같은 국제행사를 유치해 목포 섬의 경쟁력을 높여갈 계획이다. >> 18~19페이지



9 한국관광공사 비대면 관광지 100선 선정

코로나 여파에도 목포의 매력은 빛을 발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비대면 관광지 100선에 목포의 보리마당&시화마을, 고하도가 선정되며 안전한 힐링 여행지로 주목받고 있다. >> 22~23페이지



1 목포시 청렴도 수직상승 ↑ 행정투명성 높아졌다

목포시, 광주·전남 도시 중 가장 높은 등급 달성!

높아진 경제지표로 도시대상 수상의 쾌거를 이뤄냈다면
부패없는 투명한 행정으로 청렴도 향상을 일궈냈다.

인사분야에서 UP ↑ 공사분야에서도 청렴도 UP ↑

목포시는 2020년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이하 청렴도평가)에서 전라남도에서 가장 높은 등급을 달성하며, 청렴한 공직문화를 인정받았다. 청렴도평가는 매년 공사·용역 등 정부기관 및 지자체와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민원인을 통해 청렴도를 평가하는 ‘외부청렴도’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문화 등을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를 종합해 이뤄지며, 목포시는 2019년 3등급에서 2020년 2등급으로 1년 만에 청렴도가 수직 상승해 행정 투명성이 높아졌다.

그간 목포시는 청탁금지, 투명한 업무처리, 공직자 부패근절 등을 강조하며 적극행정, 친절행정, 책임행정, 성과중심 인사 등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자가학습시스템과 전직원 사이버 청렴교육 이수율 의무화해 내부 직원들의 청렴 역량과 소양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계약과 공사 등 민원처리 과정에서 공직자의 부패와 부조리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 및 안내하여 부패행위는 근절하고 민원처리의 만족도는 높이기 위해 힘써 왔다.

그 결과 내부청렴도에서는 성과 중심 공정한 인사와 소통 문화 확산으로 인사분야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외부청렴도에서는 공사분야가 특히 높은 점수를 받아 광주·전남 도시 중 가장 높은 등급의 청렴도를 달성하였다.

목포시 행정,
“투명해지고 공정해졌다”

UP!



UP!



2 목포시, 대한민국 도시대상 최우수상 쾌거

전국 50만 미만 도시 **1위** 우뚝

산업단지 분양률 향상 등 경제지표 개선

브랜드가치 제고 등 도시 경쟁력 ↑



목포가 브랜드가치를 높여가고 있다.

목포는 지난 1월 1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관광분야 최대 국가사업인 관광거점도시에 선정돼 '관광도시'로 공인받았다. 이어 지난 10월에는 국내 도시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인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대상에서 50만 미만 중소도시 중에서 1위를 거머쥐었다. 매년 전국 229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한민국 도시대상'은 도시사회·도시경제·도시환경·지원체계 등 4개 부문을 평가해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든 우수지자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목포는 도시재생 우수사례, 지속적인 보행환경 개선, 저탄소 녹색도시 우수사례 등 모든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특히 적극적인 기업 유치에 따른 산업단지 분양률 향상 등 경제지표가 크게 개선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도시브랜딩과 마케팅에 주력해 온 노력이 각종 경제지표 향상 등으로 이어져 목포는 도시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을 수 있었다. 도시 전반에 대한 우수한 평가는 시민이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의미하는 한편, 관광객이 여행하기 좋은 도시를 뜻하기에 그 의미는 특별하며 목포의 위상과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있다.



3 신재생에너지산업의 거점도시가 된다

약 40개 연관기업 유치, 약 12만 개 일자리를 창출할

목포 신항과 대양산단은 **해상풍력산업의 전진기지**가 됩니다.

목포 신항의 해상풍력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조성사업이란 무엇인가요?

- ① 전라남도에서 조성하는 서남해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에는 풍력발전기의 터빈, 날개 등 기자재와 부품을 만드는 생산단지가 필요하다.
- ② 목포 신항의 배후부지와 대양산단이 바로 생산단지가 되며, 에너지 특화기업이 입주해 풍력발전기를 제작·조립한다.
- ③ 만들어진 부품, 기자재는 신항의 지원부두를 통해 바다로 옮겨져 시공하게 된다.
- ④ 항만분야의 최상위 국가계획인 정부 제4차항만기본계획에 2,174억원이 투입되는 목포신항의 해상풍력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조성사업이 반영돼, 정부주도 사업 추진으로 탄력이 붙게 됐다.

목포 대양산단의 해상풍력지원센터는 어떤 일을 하나요?

- ① 거대한 부품을 제작하고, 운반하는데 원활하게 교통정리를 해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315억원을 투입해 대양산단에 구축하며, 통합 관리센터와 입지조사 발굴센터, 유지보수 센터 등 해상풍력 산업 전반을 지원하게 된다.
- ② 해상풍력 지원센터(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사업)를 구축하기 위해 2020년 국비 65억원을 확보해 정상 추진하고 있다.

목포 발전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① 2019년 11월 목포신항과 대양산단은 국가1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지정되어 에너지 관련 기업이 입주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였으며(공공기관 우선구매, 보조금 지원 비율 확대 등)대양산단 분양에 탄력을 받고 있다. (현재 분양률 86.7%)
- ② 앞으로 약 40개 연관기업 유치와 약 12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며 목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게 된다.

연간고용유발효과 약 4만9천명, 연간 약 2조1천억원 파급효과를 갖는 연구거점이 설치되어

목포 남항은 친환경 선박산업의 거점이 됩니다.

왜, 목포 남항은 친환경 선박단지(클러스터)의 최적지인가요?

- ① 현재 국제 선박시장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목포는 세계적으로도 블루오션인 친환경 선박분야에 발 빠르게 뛰어들었다. 특히 국내연안여객선 55%, 어선41% 집중 분포로 전국1위, 1,139척의 선박보유 대수로도 2위인 목포는 친환경 선박 클러스터 구축의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목포 남항에 조성되는 친환경 선박 단지란 무엇인가요?

- ① 전기로 움직이는 선박과 전기배터리, 친환경 혼합연료를 연구, 개발, 실증할 연구기관부터 양성교육기관까지 아우르는 친환경 선박산업의 종합단지가 국내 최초로 목포 남항에(65천㎡) 조성된다. 주요 선진국 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 공동 개발·실증, 국제 표준화를 주도한다.

목포가 전기선박 건조, 이동식 배터리 기술사업에 선정됐다는 데 어떤 사업인가요?

- ① 목포시는 2020년 4월 해양수산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2024년까지 총사업비 450억원을 투입해 대기오염의 주범인 디젤엔진 대신 전기배터리를 장착해 전기 선박을 만들고, 배터리는 차량형태 전원공급시스템으로 연구·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② 올해 국비 75억원으로 전기추진 선박 개발과 운용 인프라 설계를 추진 중이며, 2021년 국비 130억원이 확정되어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

친환경 혼합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을 진행한다는데?

- ① 해양수산부, 전남도와 함께 2021년부터 5년간 총 494억원 규모인 친환경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및 해상 테스트베드를 구축할 계획이며, 올해 국비 60억원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공모절차가 마무리되면 본격 추진하게 된다.
- ②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해 기존 LNG(액화천연가스)에 수소나 암모니아를 혼합한 새로운 친환경 연료시스템 개발하고, 다양한 기술을 해상 테스트베드를 통해 실증·인증하게 된다.

그 외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나요?

- ① 국가산하 연구기관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친환경연료추진 연구센터’를 2023년까지 남항에 설립한다. ‘과학기술대학원대학교(UST)’는 친환경선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석박사 과정을 신설한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목포시와 전남도,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와 UST는 지난 9월 22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② 이밖에도 정부 차원에서 기획·추진 중인 각종 친환경선박 관련 ‘대형 국책과제’ 등을 목포 남항클러스터에 적극 유치하여 대기업 등 친환경 선박관련 기업이 목포를 중심으로 활발한 산업 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는 거점 역할을 할 계획이다.

목포발전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① 친환경 선박산업 집적으로 연간고용유발 효과만 약 4만 9천명, 연간 최대 약 2조 1천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갖게되며, 목포는 세계 선박시장을 빠르게 선점해 기술주도권을 쥐고 신재생 에너지산업을 견인하게 된다.

4 수산식품산업 육성

전국 수산식품산업의 거점도시로 도약

기업 유치 36개사, 고용 유발 1,430명, 생산 유발 2,235억원 효과

1) 수산식품수출단지가 대양산단에 조성됩니다.

“2022년 완공 목표 기본계획 수립완료, 임대형 가공공장, 연구시설, 수산물 거래소 등 구축”



수산식품수출단지 조감도

목포 대양산단에 1,08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2022년 완공될 수산식품 수출단지는 올해 기본계획 수립을 확정하며 단지 조성에 탄력이 붙고 있다. 서남해 신선한 수산물의 집산지인 목포는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으로 수산식품산업을 고부가가치화로 이끌 획기적 발판을 마련하였다. 가공공장동, R&D지원센터동, 냉동, 물류창고와 거래소동 등 3개 건물을 구축해 수산물의 생산부터 가공, 유통, 물류 기능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경제적 효과 또한 크다. 기업 유치 36개사, 고용 유발 1,430명, 생산 유발 2,235억원의 효과로 목포경제 발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2) 목포, 바다의 반도체 ‘가공김의 메카’로 거듭납니다.

“마른김 가공에 최적화된 목포, 2021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역량강화 사업 국비 14억 지원받아”

목포는 해외시장을 개척해 나갈 마른 김 가공 산업을 육성한다. 토대는 수산식품지원센터의 연구 인프라와 수산식품수출단지 내 전국 최초로 구축되는 마른김 거래소, 김가공 산업의 핵심기반인 대양산단이다.

기업의 김가공 기술을 향상시키고, 수출단지 내 현물거래 중심 마른김 거래소를 설립해 온라인 거래가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목포시의 가공용수 정수시설 지원으로 깨끗한물(수돗물)과 바닷물을 함께 쓸 수 있어 고품질 김 생산이 가능한 대양산단 역시 목포만의 특화된 강점이다.

특히 2021년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역량강화 사업으로 국비 14억원을 지원받음에 따라 김가공 육성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기업에 품질검사 인공지능을 적용한 김 등급 분류체계 개발, 위해요소 저감화 기술 개발, 김가공공정 개선 및 식품 개발을 위한 소규모 시험설비 구축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3) 목포어묵을 대표상품으로 육성합니다.

“2021년 전남도 지역성장 전략형 공모사업 선정, 50억원 지원으로 특화어묵 육성”



목포가 간판 상품으로 내세운 두 번째 수산식품은 바로 어묵이다. 고품질의 어묵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마련해 목포만의 특화된 어묵을 육성하게 된다. 특히 ‘목포어묵 육성사업’은 전라남도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에 선정되며, 목포 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 전략 상품으로서 성장 잠재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전남도로부터 사업비 50억원을 지원받게 되며, 2023년까지 전남 최초로 목포에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시설을 갖춘 연육생산 스마트공장, 이력관리 시스템을 조성한다. 목포는 목포만의 독보적인 맛과 품질을 통해 어묵시장의 판도를 바꿔나갈 계획이다.

4) 어업인의 편익과 소득을

높이기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활어위판장 추가 구축, 어획물 자동화 선별기 설치로 작업환경 개선”

어업인의 편익을 높이는 지원사업은 목포수협과 협력하여 진행 중이다. 급증한 위판물량의 처리공간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활어위판장 옆 부지에 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해 위판장 추가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9년 선정된 해양수산부 수산시장시설개선 사업의 10억 원으로 목포수협 선어 위판장에 조기 등 어획물 자동화 선별기 6대를 설치해 작업환경을 개선했다.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고속 선별과 작업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규격화된 기계 작업으로 일정한 품질을 제공할 수 있어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어민들의 소득 증대도 기대된다.



5 글로벌 명품 관광도시로 도약하다

1) 2020년, 대한민국 4대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관광분야 최대 국가사업 선정으로, 2024년까지 약 1천억원 사업비 투입”

목포는 올해 1월 대한민국 4대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되며 관광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그간 서울과 제주도 중심의 관광 물줄기를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서남권으로 옮기겠다는 큰 의미를 담고 있다. 총 1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게 되며, 2025년까지 1천5백만 관광객이 찾는 목포로 변화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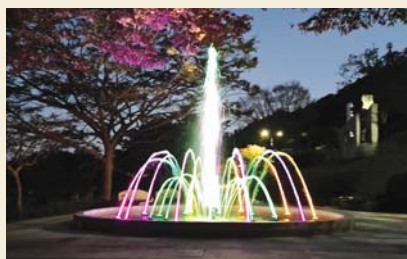
2) 코로나 시대에 관광산업,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 모두 다 잡는다. 올해는 코로나로 각종 축제와 문화행사 취소, 활동이 제한되는 상황이었지만, 모두가 주저할 때 목포는 지난 6월 대한민국 4대관광도시 선포식을 시작으로 신중하게 첫발을 내딛었다. 코로나 상황에는 내실을 다지고, 진정 시기에 맞춰 비약적 발전으로 이어 나갈 계획이다.

현재 목포는 교통, 관광, 숙박 등 다방면에서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대반동 스카이워크, 삼학도 항구포차, 고하도 목화체험장을 개장했고, 고하도 해안데크 1차분에 이어 2차분에 대한 연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늘어나는 관광객과 앞으로 준공 예정인 다수의 철도 건설사업에 대비하여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목포역 비즈던스 호텔 등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여건도 마련해가고 있다.

소규모 힐링여행으로 변해가는 관광 트렌드에 부합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단체 관광에 비해 개인의 선호와 취향이 중요한 소규모 여행특성을 공략하기 위해 통합관광 정보 제공시스템, 스마트도슨트 시스템과 빅데이터 분석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목포에 대한 정보를 폭넓게, 그리고 정확하게 찾아 즐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한편 한국관광공사가 2020년 상반기에 서산동 시화마을을, 하반기에 고하도를 각각 비대면 관광지로 선정한 것은 코로나 시대에도 통하는 목포 관광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앞으로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를 공략하고, 관광거점도시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이 찾는 관광도시로 나아갈 계획이다.



3) 해변 맛길 30리를 따라 걸으며, 목포의 맛과 멋을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1구간 | 시민들의 대표 휴식공간 평화광장의 대변신, 평화광장 맛의거리? 목포음식 오감으로 느끼는 거리!



전남도의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에 선정돼 10억원의 사업비로 ‘평화광장 맛의거리’를 조성하고 있다. 무장애 디자인으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사계절 수산물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 간판, 생생한 영상 화면으로 안내하는 키오스크 안내판, 목포 맛을 상징하는 조형물 등 맛의 거리만의 고유한 경관을 구축하여 목포음식을 맛보고, 바다의 낭만을 느끼며 걸을 수 있는 오감만족형 거리로 거듭난다.

목포의 명물 춤추는 바다분수는 불꽃쇼, 해상 무대 예술공연과 함께 어우러진 ‘목포해상 판타지쇼’라는 새로운 관광콘텐츠로 변신을 앞두고 있다. 요트·보트 체험이 가능한 해양 레포츠센터도 2022년 건립을 앞두고 있으며, 평화광장의 바닷가와 맞닿은 곳은 걷기 좋은 보행길과 녹지공간으로 재정비하고 있다.



2구간 | 남향, 아름다운 꽃정원으로 대변신 전라남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기관표창 수상!



그동안 무단경작, 불법쓰레기로 몸살을 앓았던 해양수산부 소유의 남향 유희부지(9천여평)를 목포시에서 대대적으로 정비해 꽃정원으로 조성했다. 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도전은 전라남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종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앞으로도 사계절 꽃길과 갈대숲, 바다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생태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3구간 온가족이 즐기는 낭만 한번지 **삼학도,** **사계절꽃피는 테마공원**으로 거듭난다

삼학도의 항구포차는 목포 9미부터 퓨전요리까지 다채로운 음식으로 식도락객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목포내항과 유달산을 배경으로 항구의 정취를 더했던 버스킹공연은 피날레 공연을 끝으로 2021년 더욱 풍성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관광유람선을 타면 고하도 용머리, 유달산, 춤추는 바다분수까지 목포의 매력을 알차게 즐길 수 있다.



삼학도 관광유람선 전경

또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어린이바다과학관, 요트마리나 등 풍부한 인프라를 갖춘 삼학도는 ‘사계절 꽃피는 테마공원’으로 변하고 있다. 왕벚나무와 자귀나무 등 꽃길숲과 물길숲을 조성하고 황토길과 데크로드를 만들었으며,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앞으로 호텔과 컨벤션 등 최고급 휴양시설도 확충하여 새로운 가족 유원지로 거듭날 예정이다.



삼학도항구포차 전경

4구간 100년 역사를 품은 **근대역사문화공간,** **안전하고 쾌적한 도보여행길로!**

5구간 새로운 핫플레이스 **대반동,** **스카이워크**로 인기 특독

대반동권은 고하도, 해상케이블카와 함께 바다 위에 길게 뻗은 스카이워크가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어 핫플레이스로 인기를 얻고 있다.

한편 지난 6월, 해양수산부의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대반동 지구 연안정비 등 5개 지구 사업이 반영되어, 더욱 안전하고, 걷기 좋은 친수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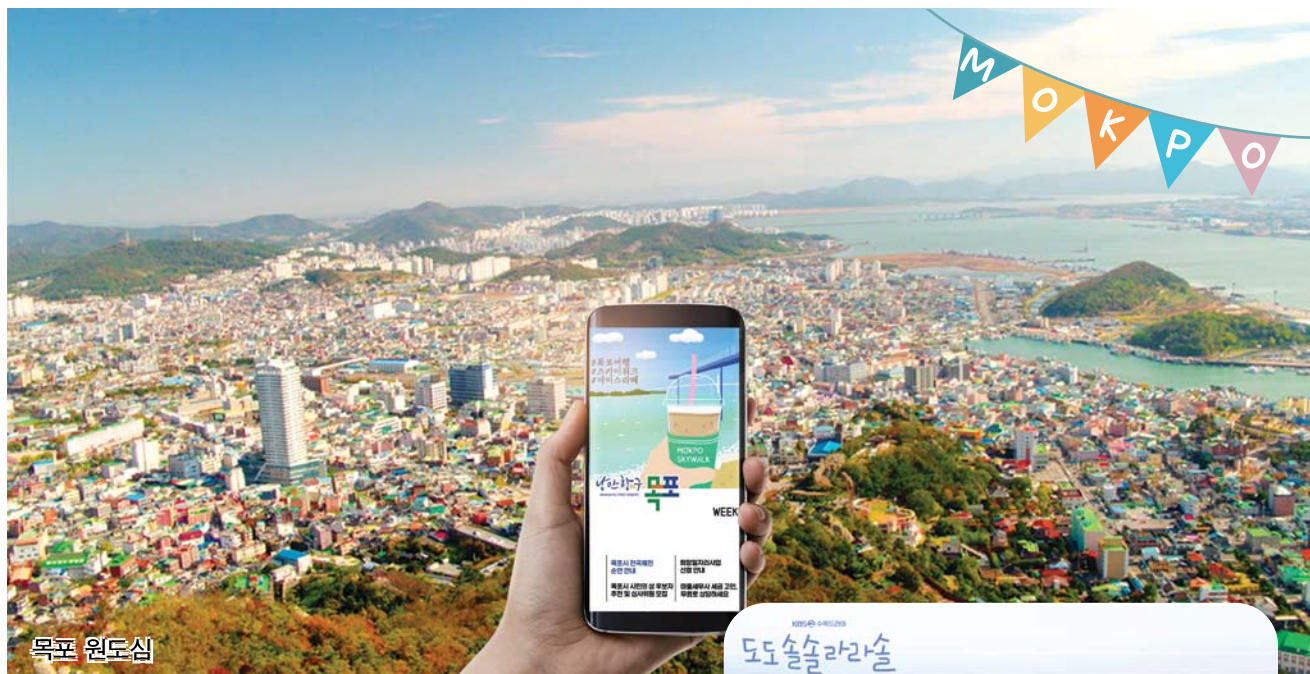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매력과 가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2021년까지 1.8km 구간에 총사업비 26억원을 투입해 도로변 쉼터, 보차도 분리 등을 조성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1차분인 초원골드맨션~선창횃집과 유달초~목포진입구 0.66km 구간을 완료, 2021년 2차분도 마무리된다.

또한, 오거리마트에서 평화선구점까지 총 430m 구간을 대상으로 추진한 간판개선사업이 완료되어, 거리가 말끔한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전선과 통신선을 매설하는 전선 지중화 사업은 원도심 변화로를 중심으로 4개 구간(2.4km)에 대하여 총사업비 약 70억원을 목포시와 한전·통신사가 50%씩 부담해 2021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모든 공사가 완료될 경우 원도심 경관은 활성화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보여행의 중심지로 거듭난다.

6 미디어 속 목포가 핫! 하다



올 해 목포는 코로나로 국내 관광이 얼어붙은 상황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았다. 관광이 언제 활기를 회복할지는 미지수지만 그럼에도 물때만 기다리지는 않겠다는 자세였다. 이를 위하여 목포는 새로운 관광 콘텐츠 확충과 함께 소규모 힐링여행으로 변화된 관광에 대응할 방안 마련에 집중했다. 특히 외출을 자제하고 가정생활이 늘어난 흐름에 대응하는데 주력했다.

가장 핵심은 미디어 홍보. 목포는 드라마, 예능, 유튜브, 웹드라마 등 각종 미디어에 촬영지로 등장하면서 화제의 중심이 됐다. 특히 목포의 진가는 인기 드라마에서 돋보였다. ‘꼰대인턴’에서 외달도가 등장해 포털사이트 인기검색어에 올랐고, 서산동 보리마당에 세트장을 마련해 80% 이상을 목포에서 촬영한 ‘도도솔솔라라솔’은 넷플릭스 인기순위 3위에 오르며 해외에 목포를 알렸다.



올해 10월, 한국관광공사가 목포를 배경으로 제작한 홍보영상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도 12월 기준 유튜브 조회수 3천 9백만을 넘어설 정도로 전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예능프로그램 팬스토랑을 통해 맛의도시 목포를 알리고, 목포 김 판매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이처럼 각종 미디어를 통해 목포는 청정 힐링 여행지로서 주목받고 있으며, 도시자체가 관광컨텐츠로 변화하고 있다.

7 섬의 가치 확대!

목포 미래, 섬에서 묻고 답하다

1) 어촌뉴딜 300 사업, 3년 연속 선정 쾌거

관내 4개 섬, 획기적 발전 전기 마련

어촌과 어항을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하는 어촌뉴딜 300사업에 목포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연속 선정됐다. 2019년 달리도항·어망촌항 ‘슬로우 아일랜드 조성사업’, 2020년 울도항 ‘몸과 마음의 충전소 조성사업’에 이어, 2021년 사업에 고하도가 선정됐다. 용오름 마루 조성, 고하도 트레킹 스테이션 조성, 진입도로 정비 및 마을 경관조성, 자전거 스테이션(고하도 타부러)조성, 바다체험낚시터 조성, 탐방로 정비 등을 통해 고하도의 매력을 키워나갈 예정이다.

핵심은 어촌어항 필수기반시설 현대화와 해양관광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다. 달리도항 어망촌항은 접안시설 및 물양장 확장, CCTV 설치 등 노후어항 환경정비 등 공동사업이 진행 중이며, 섬 관광, 휴양을 위한 기반이 될 달리도 쉬어가 및 맞이공원 등 특화사업은 2021년 사업에 착수한다. 울도항의 선착장, 방파제 설치, 대합실 정비 등의 공동사업은 지난 6월 착공해 진행 중이며, 힐링센터, 탐방로 및 힐링로, 경관정비 등 특화사업도 추진한다. 모든 유인도서에서 실시되는 어촌뉴딜 300사업은 어민들의 소득기반을 창출하고 어촌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장좌도 해양관광리조트, 2021년 1월 착공 예정

체류형 관광 이끄는 대규모 숙박시설 구축

2022년까지 장좌도 일원에 조성되는 목포 예술랜드는 지난 11월 실시계획인가 고시에 이어 2021년 1월 착공할 예정이다. 민간자본으로 조성되는 장좌도 해양관광리조트는 체류형 관광을 이끄는 핵심 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2028 세계 섬 엑스포 유치 추진

세계 섬 엑스포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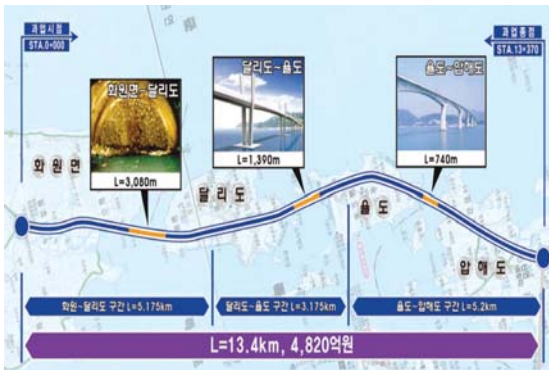
목포시는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과 함께 ‘서남해안 섬 벨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8 섬엑스포 유치, 지속가능한 섬 발전, 섬 관광 활성화, 공동 마케팅 강화를 위해 섬 발전 정책 관련 예산을 분담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공동 건의하는 등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섬엑스포 유치 타당성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이며, 개최 당위성과 계획을 마련해 국제행사 승인 신청을 본격 준비한다.



4) 국도77호선 연결도로 사업 착수

섬의 연륙화로 교통환경 개선, 관광활성화 기대

신안 압해, 목포 울도와 달리도, 해남 화원까지 총연장 13.4km의 국도 77호선 연결도로 사업은 국비 4,820억원을 투입해 해상교량과 해저터널로 목포, 신안, 해남 3개 시군을 잇는 공사다.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돼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으며, 2021년 정부예산에 298억원이 반영되며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섬의 교통 환경이 개선되고, 접근성이 좋아져 관광 활성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5) 외달도 바다자연정원 조성

어촌뉴딜 300사업, 해수풀장 리모델링으로 테마공간 조성

섬 고유의 풍경과 자원을 활용한 ‘바다자연정원’ 조성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2019 어촌뉴딜300 공모사업 일환으로, 외달도 향토자원과 바다 경관을 활용해 해수풀장을 새롭게 리모델링해 관광명소로 만드는 게 핵심이다. 기존 외달도 생태숲길 탐방로 정비, 느린걸음 정류장 조성, 빈집철거·정비 등과 함께 어우러져 마을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인위적인 경관을 연출하는 시설은 철거하고, 자연친화적인 경관을 조성해 슬로시티 이미지와도 연계한다. 유희공간은 테마정원으로 조성해 다목적 열린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8

예향목포, “문화도시”라는 날개를 달다

1) 목포, ‘예비문화도시’에 도전합니다

문화의 힘을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 만드는 문화도시 조성 공모사업 추진

문화도시란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단발성의 문화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문화생태계를 구축해 새로운 문화도시 브랜드를 창출하고 미래지향적 도시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문화향유 기회를 넓혀가는 것이 주요 핵심이다. 사업계획이 승인된 예비문화도시는 1년간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후, 추진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거쳐 최종 문화도시로 선정되면 5년 간 총사업비 최대 100억원을 지원받는다.

목포는 올해 초부터 시민공동협의체 구성을 시작으로 권역별 집담회, 분과별 라운드 테이블, 전문가 워크숍, 온라인 설문조사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시민들 의견을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수렴·반영했으며, 지난 7월 문화도시 공모사업에 신청했다. 지난 8월 문화도시 조례제정에 이어, 9월 온라인 인터뷰 진행으로 1차 평가를 완료했다.

그리고 10월 문화도시 현장답사로 2차 평가를 마친 상황이다.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향해 씩 없이 달려왔던 목포의 새로운 도전은 12월 현재 예비문화도시 선정에 대한 결과 발표만을 앞두고 있다.

목포는 문화도시추진 운영조직과 시민 라운드테이블로 구성된 경영체계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행사를 기획·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성할 계획이다. 원도심과 신도심의 경계를 허무는 권역별 문화지구 조성, 문화 활동의 매개자가 될 문화인재도 양성한다. 또한 도시재생사업, 관광사업 등과 연계해 지속 가능한 문화생태계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목포는 맛과 멋, 문화와 예술, 전통과 역사 등 비교우위 콘텐츠가 융합된 문화도시라는 새로운 도시 브랜딩 날개를 달고 문화가 곧 삶이 되는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 도시로 힘차게 비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전국 최초 ‘목포문학박람회’를 개최합니다

풍부한 문학자원을 활용한 독창적 문학축제 추진, 새로운 지평 열어간다

“목포가 새롭게 시도하는 브랜드 마케팅, 문화관광도시로서 선보일 첫 번째 카드는 바로 문학이다. 문학과 박람회를 접목한 전국 규모의 목포문학박람회를 통해 새로운 문화 행사를 선점함으로써 문학 중심지로 도약하고 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더욱 부각시킬 방침이다.”

목포는 김우진, 박화성, 차범석, 김현 등 한국 문학사에 한 획을 그은 선구적 문학인을 대거 배출한 도시이다. 현재도 문학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문향의 도시이다. 또한 목포문학제, 김우진문학제, 박화성문학페스티벌, 김현문학축전 등 다양한 문학 행사와 원도심의 시화 골목길, 목포문학길 투어 등은 목포만의 독보적 문학 인프라다. 2007년 개관된 국내 최초의 4인 복합 문학관인 목포문학관은 목포문학상 공모전과 문학행사, 문학창작 교육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19년 한국문학관협회 ‘올해의 최우수 문학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문학박람회는 이러한 목포만의 인적·물적 문학 인프라를 토대로 문학 거장들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 국내·외 유명 작가 초청 문학 콘서트, 전국 규모 문학상 시상식, 근대역사 문화거리를 활용한 지붕 없는 박물관 투어 등 목포 전역을 활용한 프로그램은 물론 관광과 연계한 독창적인 문학 콘텐츠를 선보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11월 문학단체, 문학인들과 의견 수렴 간담회를 가졌으며, 순수문학뿐만 아니라 재미를 가미한 프로그램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는 목포문학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끝난 상태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구체화하고 전국적 홍보와 함께 본격적인 박람회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전국 어디에서도 시도된 적 없는 문학박람회를 선보여 특화된 문화 브랜드를 구축하고 문화 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자 한다.



목포 시화마을과 연희네 슈퍼



서산동 보리마당



9 보리마당 시화마을, 고하도

한국관광공사 “비대면관광지 100선” 선정

1) 바다를 품은 **보리마당 & 시화마을**, 예술로 온기를 품다

서산동 보리마당에서 세 갈래로 나뉘는 시화골목은 지역주민과 예술가들이 함께 힘을 모아 조성한 시화와 벽화로 가득하다. 오롯이 온금동과 서산동을 배경으로 한 정감 가는 시 한 편씩 읽는 재미가 쏠쏠하다. 조금새끼, 다순구미 등 향토적 언어와 구수한 사투리는 절로 웃음을 자아낸다. 이렇듯 목포는 도심 속 숨은 속살, 골목길 깊숙한 곳까지 문화예술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과거 보리타작을 했던 너른 보리마당에 서서 목포 앞바다를 내려 보는 경관 또한 일품이다. 배들이 오가는 풍경과 고된 하루를 마치고 돌아오던 옛 뱃사람들의 자취를 엿볼 수 있어 항구도시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가장 목포다운 장소이기도 하다.

“뛰어난 풍광과 자연환경, 그리고 문화와 인문환경 등이 함께하는 보리마당과 시화마을 그리고 고하도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편히 쉬어갈 수 있는 비대면 관광지 100선에 선정 됐다. 지난 4월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야간관광 100선에 춤추는 바다분수와 해상 케이블카, 갯바위 해상보행교가 이름을 올리며, 관광자원의 가치를 인정받는 등 목포는 명실상부 관광중심지로서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서산동 일원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기반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서산동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진행 되고 있다. 순환형 임대주택과 공공편익 공간 조성, 보행 편의와 안정성을 높이는 골목길 정비, 공가와 폐가를 활용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공간을 지원하는 청년 문화 예술 창작촌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1년까지 바다경관을 활용해 추진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장소의 고유한 멋은 살리고, 환경은 개선해 관광객들에게는 목포만의 정취와 감성을 더하고, 추억을 공유하는 주민들에게는 새로운 생기와 온기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역사와 문화를 품은 **고하도**, 다양한 관광 인프라로 매력을 품다

고하도 해안데크와 판옥선 전망대

청정 바다 위를 걷는 듯한 1.8km 길이의 해안데크는 해안 절경을 만끽하는 즐거움을, 이순신 장군 조형물과 용머리가 있는 포토존은 잠시간 쉬어갈 여유를 선물한다. 판옥선 전망대에 오르면 유달산의 풍광과 다도해 비경을 한눈에 담아볼 수 있으며, 밤바다를 수놓는 고하도 경관조명 또한 장관이다. 현재 해안데크 2차분(738m)에 대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2021년이면 해상데크 위에서 서서 해안동굴도 감상하며 고하도의 모습을 폭넓게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유일 목화체험장 개장

고하도 곳곳에 새로운 관광, 문화체험 인프라가 조성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 육지면(목화) 발상지라는 역사적 가치와 상징성을 살려 국내 유일 목화체험장이 10월 개장했다. 목화 조형물과 목화문화관, 유리온실, 루프탑 테라스와 함께 자연친화형 어린이놀이시설도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힐링 장소로 제격이다. 약 4,000㎡ 부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목화는 관람객들이 성장 과정을 관찰할 수 있고, 2021년부터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어 놀이와 교육이 함께하는 테마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 호남권 생물자원관 개관

또한 12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은 섬과 연안의 생물자원을 조사·발굴하고 연구·전시하는 기관으로, 다양한 서남해안권 생물자원을 관람하고 학습할 수 있어 해상케이블카 등 기존 관광 인프라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다양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새로운 관광거점으로 거듭나고 있는 고하도가 개별 사업들이 연계돼 역사와 문화·관광이 함께 잘 어우러진 조화로운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2021년 중 수립할 계획이다.





10 맛의도시 목포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다

1) 목포음식, 간편하게 어디서든 즐긴다.

“간편음식 주전부리 3종 개발”

목포가 맛의도시 브랜드화를 추진하면서 힘쓴 부분 중 하나는 특색있는 간편음식 개발이다. 관광과 맛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목포에 오면 꼭 먹어보고 구매하는 먹거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 이를 위해 목포는 지난해부터 목포 손맛 영상 레시피 공모전, 전문기관 상품연구 등 레시피 개발에 오랜 기간 심혈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구하기 쉬운 재료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목화숨빵, 비파다쿠아즈, 맛김새우칩 3종을 주전부리로 최종 선정했으며, 론칭쇼를 통해 본격 출시되는 간편 음식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소상공인의 소득을 증대하는 효자상품이 될 주전부리 판매업소는 소식지 뒤표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목포음식, 정확하게 어디서든 찾는다.

“관내 음식점 상호·위치·메뉴·사진 등 자료 구축”

개인의 선호에 맞는 목포의 맛집을 언제든 손쉽게 찾을 수 있는 방대한 자료가 구축된다. 목포는 지난 11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0년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2억원을 지원받아 스마트 음식관광 시스템을 구축한다. 관내 4,500여개 음식점의 정보, 이미지, 다국어 메뉴판 번역 지원 등 공공데이터를 구축하고,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도 공개할 계획이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관광객이 음식점 방문 전 메뉴검색→예약→결제를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스마트 외식정보 어플을 개발할 방침이다.

3) 목포음식, 개선되어 어디서든 빛난다.

“1:1 맞춤형 컨설팅, 학술대회 개최”

목포는 언택트로 변화하는 외식시장 트렌드에 맞춤형 대안을 제시하는 1:1 컨설팅도 새롭게 진행하고 있다. 모집 공고후 선정된 8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타 지역 우수 음식점 견학을 진행하고 컨설턴트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간편식·소포장 등으로 대변되는 외식시장 흐름에 맞게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한다. 한편 한국외식산업정책학회와 공동으로 미식관광에 대한 종합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학술대회도 12월에 개최했다.

“반려동물 놀이터, 장난감 도서관, 리틀야구장” 조성

목포시는 도심 속 곳곳에 시민 편의를 높이고 여가를 선용하며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해 가고 있다.

1. 반려동물 놀이터

첫째, 부주산 옛 화장장 부지에 반려동물놀이터를 조성한다. 3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3,500㎡ 규모로 조성하는 반려동물놀이터는 반려동물과 양육자가 편히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동물전용 놀이시설, 배변을 위한 마킹장, 그늘막과 같은 쉼터 등 편의 시설을 조성한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난 12월에 착공했으며, 2021년 상반기에 완공될 예정이다.



2. 장난감 도서관

둘째, 용해지구에는 전남 최대 장난감 도서관이 조성된다. 현재 연면적 4,424㎡로 지하1층~지상 3층 규모의 용해지구 문화시설 건립이 추진 중이다. 2층에 들어서는 장난감 도서관을 비롯해 어린이 도서관, 동아리실, 북카페 등 다양한 복합문화 공간으로 구성했으며, 특히 어린이들이 머무르는 놀이공간인 만큼 자재부터 공간배치까지 안정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놀이와 체험, 독서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은 2021년 1월 착공 예정으로, 2022년 개관한다.



3. 리틀 야구장

셋째, 어린이들의 꿈의 구장, 리틀야구장을 조성한다. 영산강 카누경기장 옆 5,700㎡ 체육시설 용지에 야구장 1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마사토 보강, 안전펜스, 덕아웃, 휴게실 등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설을 설치한다. 지난 3월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균특 교부가 결정되며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다. 야구 꿈나무들의 요람이 될 리틀야구장은 2021년 1월에 착공, 3월에 만나볼 수 있다.



목포항, 서남권 경제중심 항만으로 도약

신항·내항·북항

해상풍력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조성 등 12개 주요사업이 항만분야 최상위 국가계획인 2020년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됐다. 골자는 목포 신항과 북항, 그리고 내항의 기능 재배치로 여객, 관광, 레저, 물류, 수산으로 새롭게 특화 개발하는 것이다. 항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항만 기본계획은 전국 항만의 육성방향 및 개발계획 등이 포함돼 국내 항만 운영의 기준이 되며, 반영된 사업은 착공 등 전 과정이 국비로 추진된다. 그간 목포시는 노후·유휴화된 항만과 주변시설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들이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전력을 다해왔으며, 이번 4차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됨에 따라 국비 약 8천억원 이상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 신항은 2,174억원이 투입돼 3만 톤급 1선석과 23만8천㎡ 규모의 항만배후단지가 조성돼 신안에 조성되는 8.2GW의 해상풍력 단지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서남권 수출 중심항으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5만톤급 1선석 자동차부두가 추가 확충되고 기존 석탄부두는 잡화부두로 기능을 전환해 활용도를 높인다. 신항 남단에는 예부선 부두를 신설해 목포 항내 난립한 예부선을 신항으로 옮겨 질서를 확립한다. 해경서부정비창 부두 신설로 해군·해경선의 수리조선·정비 기능을 확보하고 조선, 기계 등 배후산업과의 연계 활성화를 도모한다.

목포 내항은 3만톤급 1선석 규모의 국제여객 부두가 확충돼 여객 기능을 강화하고 대반동수제선 정비사업과 육상전원공급설비가 반영돼 서남권 도서연결 중심항만으로 육성된다. 동명동 물양장은 복합친수공간 4만㎡를 조성해 내항은 명실상부한 역사, 레저, 관광, 여객 기능 항만으로 개발된다.

목포 북항은 어선물량장 기능을 확충하고 신조선 건조에 따른 안벽 접안시설 보강과 소형선박 계류장 중력식 방파제 보강구축을 통해 수산물 선별작업 등 어획물 양육을 위한 작업공간과 어선접안 시설을 확보하며 어업과 수산업 중심항구로 탈바꿈한다. 이와 함께 북항 배후단지 진입도로 910m 개설과 6천㎡ 규모의 해양 열린캠퍼스 친수 공간 구축사업이 반영돼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친화공간을 확보해 북항 기능에 다양성을 더한다.

목포시는 이와 같이 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항만별 특색 있는 기능강화 사업을 통해 서남권 경제중심 항만도시로서 입지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목포항이 서남권 지역의 핵심산업을 지원하는 역할로 목포항의 옛 명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반영된 다수 사업을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목포항은 조선산업 지원 및 자동차 수출 중심 항만으로 발전하며, 항만 인프라 확충을 통해 관광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 택시 통합브랜드, “목포 낭만콜” 개통

전국 최초 목포지역 전용 브랜드 콜택시 모바일 앱이 개발됐다.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를 통합한 목포만의 브랜드 콜택시인 ‘목포 낭만콜’은 그간 택시 회사별 콜센터 운영으로 발생했던 이중배차 문제와 특정 스마트모빌리티 업체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사업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목포 소재 9개 법인·개인 택시 지부가 함께 동참해 추진해 왔다. 사업비는 총 1억2천5백만원으로 목포시가 1억원을 지원해 앱 개발과 시스템을 구축했다. ‘목포 낭만콜’은 목적지만 입력하면 택시를 부를 수 있는 목포지역 전용 모바일 앱으로 실시간 배차시스템을 적용해 신속한 배차로 기다리는 시간을 단축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화(☎1688-8255) 호출도 가능해, 모바일 앱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이처럼 시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는 시스템이 마련돼 목포는 대한민국 4대 관광 도시에 걸맞은 관광 수용태세를 갖췄다. 또한 택시 회사별로 달랐던 기존 방법등 색을 통일해 브랜드 슬로건 ‘낭만항구 목포’를 홍보해 관광객에게 목포의 독자적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 목포세관 “미식복합공간”으로 재탄생

목포지주개항의 상징성을 보여주는 구 목포세관 본관 터 및 창고는 가치를 보존하고 새로움은 더한 공간으로 재탄생될 예정이다. 1950년대 준공된 이후 현재까지 남아있는 구 세관창고는 보수정비와 함께 미식클럽(오픈키친), 소공연장 등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현재 목포세관 본관 터 발굴 조사가 완료돼 구 목포세관 청사와 신청사, 국가정보원 목포출장소 일부 등 3개의 건물시설이 확인됐다. 향후 목포세관 본관 터는 노출 전시해 개방한다.

한편 목포세관은 1897년 10월 1일 목포 개항과 동시에 해관(海關)이라는 명칭으로 관세업무를 시작했으며, 1907년 세관으로 개칭된 뒤

1908년 목포진에서 현재 위치(항동 6-33)으로 옮겨왔다. 옮겨진 세관 본관은 1950년대 멸실되고 1955년 신청사가 신축돼 1967년 목포세관이 삼학도 이전 전까지 관세업무를 수행한 곳이며, 지난 6월 건축사적 가치를 인정받은 구 목포세관 본관터 및 창고는 등록문화재 제786호로 지정됐다.



2020 최고의 여행지 어워드 ‘대상’ 수상

목포9미 미식여행, 근대역사문화거리, 목포해상케이블카 등 특색 있는 여행지로 호평받고 있는 목포가 기차 여행객이 뽑은 2020년 최고의 국내여행지로 선정됐다. SRT 매거진은 국내 여행문화 활성화를 위해 2018년부터 SRT 최고의 여행지 어워드를 뽑아왔으며, 이번 심사를 위해 지난 9월 한 달 동안 1차로 독자 약 8천 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2차로 여행작가, 여행전문기자 등 10인의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 목포시는 공정한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10개 도시 중 시 단위에서 최고의 여행지로 선정됐다. 목포는 맛의 도시답게

목포9미를 찾아 떠나는 미식 여행과 국내 최장 길이의 목포해상케이블카,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호텔 델루나의 촬영지로 널리 알려진 목포 근대역사관 1관 등 흥미로운 여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목포가 최고 여행지로 선정됨에 따라 SRT 매거진 11월호에 목포 풍경과 관광지 소개가 수록돼 목포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됐다. 관광 중심지라는 위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광 콘텐츠를 확충하고 방역을 강화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목포시, 지방채 빠른 상환 (121억)

목포시가 지방채 121억원을 조기 상환해 재정 건전성이 향상됐다. 양을산 터널 개설을 위해 2005년에 발행한 지방채 400억원(이율 3%, 2021년 2월 만기) 중 채무 잔액 40억원과 2013년 감액된 지방교부세를 보전하기 위해 발행한 지방채 202억원(이율 3.77%, 2024년 9월 만기)의 잔액 81억원 전액을 지난 9월 29일에 상환 완료했다. 이로써 목포시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지난해 말 9.53%에서 12월 현재 8.5%로 감소해 재정건전성이 향상됐다.

절감된 이자 4억4천만원과 매년 갚아야 할 채무 원리금 상환 재원은 주민 편익사업 등 각종 투자 사업에 재투입 활용된다. 시가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조기에 지방채를 상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과 함께 고통을 분담한다는 각오로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경상경비를 절감한 집행 잔액을 매년 일정액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조성·운영한 결과이다. 상환기금은 2011년 제정돼 지방채 상환재원으로만 사용된다.

목포시, 중앙 공공기관 13개소 유치 -1천여명 인구 유입 효과 · 일자리 창출 기대-

목포시가 공공기관을 대거 유치함에 따라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할 새롭고 희망찬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1월 이전 완료한 한국어촌어항공단 서남해 지사는 국제여객터미널 2층에 개소해 현재 어촌어항 개발사업 지원 등의 업무를 하며 약 30명의 직원이 근무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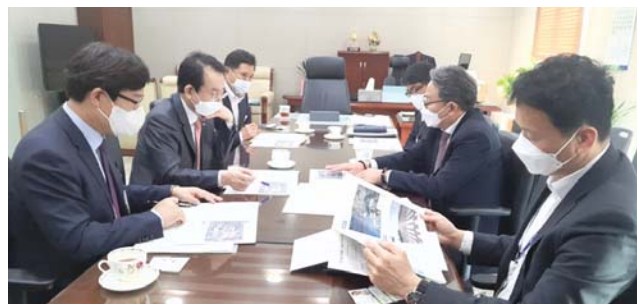
목포경찰서 이전으로 남아 있던 용해동 부지에는 법무부 스마일센터, 통일부 호남권통일플러스센터, 여성가족부 전남청소년지원센터 3개 공공기관을 유치해, 현재 청사 개축과 부지 정비가 진행 중이다. 160여명의 상주인력이 근무할 예정이며, 유동인구가 증가해 그간 공동화 현상으로 침체됐던 상권이 활기를 띠 예정이다.

또한 고하도에는 12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과 북항 배후부지 일원에는 서남해권종합안전훈련장과 서남권 스마트선박 안전지원센터가 조성돼 선원과 학생의 안전 교육을 담당할 110여명의 직원이 근무한다. 신항허사도 일원에 2024년까지 완공될 해경서부 정비창도 종사자가 260여명에 달할 예정이다.

2023년까지 조성될 산정근린공원 내 유아교육진흥원 서부분원, 대양산단 내 해상풍력 지원센터, 남항에 친환경연료추진연구거점도 들어서면, 기관 근무인력은 곧 목포시 인구증가에 힘을 더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목포시는 공공기관, 기업체 근무자의 목포 정착에 대응하는 인구 증가 대책도 수립해 단기와 중장기 투트랙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단기 전략은 우리 직장 · 우리 주소 갖기,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자금 지원 확대,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등이, 중장기 전략은 3대 미래 전략사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개선이다. 목포는 새롭게 유입되는 인구를 지역성장 핵심원, 목포시 인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해양쓰레기 수거 총력, 깨끗한 미항을 시민 품으로!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영산강 수위 조절을 위해 하구둑 배수갑문이 개방되면서 목포 앞바다는 각종 생활쓰레기와 수초, 목재 등으로 뒤덮였다. 광복절 연휴 3일을 반납해 전 공직자, 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평화광장 등 해안가 환경정화를 위한 대대적인 수거작업으로 해양환경을 복구해 깨끗한 미항의 모습을 되찾았다.



목포시의회, 해양가 쓰레기 현장 보고 동참의 절실함 느껴

시의원과 의회직원 25명, 해양문화재연구소 일원 해안쓰레기 마대 100포 수거

목포시의회가 의원 및 직원들 27명으로 해양쓰레기 수거 청결단을 자체 구성해 8월 14일 해양문화재연구소 일원에서 해양쓰레기 수거 청결 활동에 비지땀을 흘렸다.

청결단에 참여한 의원들은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관광도시 목포가 해안쓰레기 더미로 변해 버린 현장을 둘러본 후 심각성을 절감하고 수거에 팔을 걷어부쳤다.

청결단 일원은 적극적으로 정화 활동을 펼쳐 마대 100포 분량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했다.

이로 인해 갯바위권은 관광객에게 목포의 청결한 이미지를 제공했고 시민들에게도 더할 나위 없는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제 모습을 되찾았다.

박창수 의장은 발벗고 나서 동참한 의원들과 직원들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갯바위 인근 해양청결활동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자원회수시설 설치 관련 토론회



| 기획복지위원회 | 청소년수련관 현장방문

목포시의회, 감염병 재확산 방지에 앞장 서

원산동 신중양시장 찾아 방역소독, 장보기, 간담회를 갖고 실의에 빠진 상인 응원

목포시의회(의장 박창수)가 코로나 재 확산 방지에 앞장서고 있다. 목포시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30여 명은 31일 신중양 시장을 찾아 감염병 확산에 따른 감염병 예방 캠페인과 방역소독과 간담회를 갖고 실의에 빠진 상인들을 위로하였다.

목포시의 선제적인 감염병 예방 조치와 지역주민의 사회적거리두기 등 높은 시민 의식에도 불구하고 3명의 감염자가 발생하며, 감염병 예방과 실의에 빠진 상인들을 응원하고자 시장을 찾았다.

의원들은 시장 구석구석 방역소독을 하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감염병 예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포시와 목포시의회의 노력을 설명하고, 물품을 구입하며 상인들에게 힘을 주었다.

이후 상인회와의 간담회에서는 시 차원의 소상공인 지원대책 마련, 전통시장 장보기 운동 적극추진, 전통시장과 관광객 연계 방안 마련 등의 상인회 측 요구가 있어,

목포시의회는 감염병으로 인한 민생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감염병이 진정되면 의회, 집행부, 전통시장 상인회간 토론회를 개최하여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 하겠다고 했다.

한편, 목포시의회는 보건소와 감염병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목포시보건소 등 선별 진료소 점검, 의원 개별 지역구 방역소독 참여 등 감염병 예방에 앞장서왔고, 지난 2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동부시장을 찾아 물품을 구입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 등을 들어 정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 하였다.



코로나19관련 신중양시장 캠페인



| 도시건설위원회 | 광역위생매립장 현장방문



| 관광경제위원회 | 스키이워크존 현장방문



용당1동



지역아동센터 아동과 함께 마술공연 관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8월, 지역아동센터 아동 30명과 지역꿈나무 문화체험 행사를 가졌다. 공연을 관람하고 마술을 배우는 체험의 시간을 가진 후 정성스럽게 포장한 과자 선물꾸러미를 전달하고 격려했다.

용당2동



“찾아가는 희망꾸러미”로 이웃사랑 실천

목포사랑봉사회는 지난 10월 홀로 사시는 어르신 30세대에 삼계탕과 절편 등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희망꾸러미”를 전달했다.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는 쌀10kg 10포를 전달하는 등 꾸준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연 등



“연동상회”로 따뜻한 연동 만들기

지난 11월, 주민과 자생조직 회원의 기부물품을 판매하는 장터, 「연동상회」를 개최해 수익금(약 150만원)을 모았다. 연말 불우이웃돕기 행사를 위해 쓰일 예정이며, 지역사회에 온기를 더하고 있다.

산정동



“사랑의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 전개

한국자유총연맹 목포시지회와 산정동에서는 지난 11월 형편이 어려운 가정 2세대를 방문해 방충망, 방범창 설치 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하는 사랑의 집고쳐 주기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연산동



사랑으로 빛은 송편,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께 전해

추석을 맞아 연산동 새마을부녀회는 회원들이 직접 정성껏 준비한 재료로 송편을 빚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홀로 사시는 어르신 50가정에 전달해, 훈훈함을 더했다.

원산동



코로나19로 힘든 이웃에게 건강한 희망 전달

복지 소외계층을 발굴해 지원하는 원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코로나19로 힘든 이웃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면, 사랑의 백미 10kg 40포, 건강물품 꾸러미 25세트를 기탁해 취약계층과 지역아동센터, 그룹홈에 전달했다.

대성동



코로나 위기 속 이웃사랑 손길 이어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특화사업으로 선정한 사랑나눔가게 11개소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주민 6세대에 긴급구호비(180만원) 지원하고, 550가구에 식료품을 후원하며 따뜻한 희망을 전했다.

목원동



“어르신 돌봄 희망 복지도우미” 사업 추진

지난 8월부터 “어르신 돌봄 희망 복지도우미” 사업을 추진 중이다. 거동 불편, 홀로 사시는 어르신 500여명 대상으로 집 청소와 밑반찬 제공, 안부를 함께 살피는 등 특화사업으로, 목포사랑운동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명동



후원물품 전달로 이웃에게 사랑의 손길 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지역주민의 기탁물품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하는 “2020년 따뜻한 명절 사랑 나눔” 행사를 개최했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쌀50포, 주)삼일무역 톨화장지 50개, 삼학새마을금고에서 라면 20박스 기부로 나눔 행사에 함께했다.

삼학동



‘온정나눔가게’ 업무 협약식 개최

지난 10월 나눔가게 14개소와 업무 협약을 체결, 나눔가게 현판을 전달했다. ‘온정나눔가게’는 주민이 자발적인 나눔을 실천하는 삼학동 특화사업으로,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정기적 물품·재능기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만호동



만호마을, 2020 전남 마을이야기 박람회 특별상

지난 11월 ‘함께하는 전남, 찾고 싶은 마을’이라는 주제로 펼쳐진 2020 전라남도 마을이야기 박람회에서 목포시 대표로 참가한 만호마을은 마을공동체를 주축으로 근대역사문화 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으로 높이 평가 받으며 유튜브 시청순위 1등, 특별상을 수상했다.

유달동



2020년 섬 지역(달리도) 소통의 날 운영

지난 11월 달리도에서 「2020년 섬 지역 소통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달리도 주민 100여명과 함께하며 건의사항을 청취,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며, 가스 점검, 농기계점검, 주거개선, 의료봉사, 이·미용서비스 등 현장 행정서비스로 큰 호응을 받았다.

죽교동



“케이블카가 뜨는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죽교동은 2019년부터 “케이블카가 뜨는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라는 테마로 골목길 환경개선, 공한지 정비 및 집수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아름다운 그림과 위로의 메시지로 주민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북항동



어린이 희망 볼링교실 운영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동 특화사업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저소득층 초등생 대상 어린이 희망 볼링교실을 운영했으며, 목포시볼링협회, 국제볼링타운의 인건비 일부 지원, 목포시체육회, 목포시볼링협회, 주민자치위원장, 통장협회의 간식, 방역활동 지원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용해동



추석명절 홀로사시는 어르신 120세대 지원

목포현대병원은 관내 홀로사시는 어르신의 추석 위문에 사용해 달라며 600만원을 목포복지재단을 통해 용해동에 기탁했으며, 용해동 통장협의회에서 추석 위문품 세트로 구성해 홀로 사시는 어르신 등 120세대에 전달했다.

이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절꾸러미로 나눔 실천

지난 추석명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힘을 모아 홀로사시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소고기와 과일 등으로 구성된 명절꾸러미를 전달했으며, ‘희망 두배로 사업’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을 투병중인 3가정에 의료비 110만원을 전달했다.

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코로나 극복! 사랑나눔 실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2주 1회 홀로 사시는 어르신,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등에 밀바찬 6종 전달과 안부를 살펴 찾아가는 복지를 실천하고 있다.

하당동



저소득가구에 이불, 밀반찬 지원

하당동 새마을협의회에서는 지난 11월 관내 저소득 가구를 대상 ‘이불, 밀반찬 나눔 지원’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독거노인 및 중장년층 저소득가구 20세대에 이불과 밀반찬 5종류를 회원들이 직접 전달했다.

신흥동



글로벌 관광도시 대비 중국어 강좌 개설

소상공인과 시민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목포 글로벌 맞춤형 중국어 강좌’가 진행 중이며, 이주 여성 강사 지도로 기초발음과 상황별 회화 교육을 무료로 진행해, 수강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삼향동



170만원 상당의 물품 소외계층 50세대에 전달

추석 명절을 맞아 후원받은 위문품을 저소득 취약 계층 50세대에게 고루 전달하고 안부를 살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생활용품 선물 세트(20박스)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생활용품 잡화 세트(30박스)를 기탁하는 등 이웃사랑 실천으로 따뜻함을 전했다.

옥암동



이웃사랑 나눔 릴레이 이어져

추석을 맞아 이웃사랑 나눔활동이 이어졌다. 장난감 할인마트에서 라면 100박스, 맘마트(옥암주공2차점)에서 라면 20박스, 와이마트(하당점)와 포청천에서 각각 라면 5박스와 쌀(10kg) 5포와 쌀(10kg)8포를 후원해 저소득층 가정과 다자녀 가정에 전달됐다.

부흥동



주민자치위원회·통장협의회, 등근공원 꽃무릇 식재

지난 11월,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협의회는 등근공원 내 꽃무릇을 식재했다. 유휴공간에 3,000본을 식재하여 등근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치유의 공간으로 재탄생됐다.

부주동



지역주민 나눔 이어져 마음의 온도 UP!

지난 11월, 익명의 독지가는 마들렌 300개, 황금향, 사과 등 과일 4종을 부주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 아산자동차공업사에서 라면 100박스를 전달해 지역 사회에 온기가 전해지고 있다. 부주동은 기부 물품을 관내 한부모, 홀로사시는 어르신 등 저소득층 80가정에 전달했다.

빛나는 2020년 수상·공모사업 선정실적

수상실적

(인센티브 : 천원)

경제
관광

제16회 대한민국지방자치경영대전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 (1,000)

SRT 최고의 여행지 어워드 대상

전라남도 일자리창출 우수시군 대상 (30,000)

전라남도 지역경제 활성화평가 최우수상 (10,000)

전라남도 투자유치대상 우수상 (9,000)



최고의 여행지 어워드 대상

도시
행정

대한민국 도시대상 최우수상(국무총리상)

상·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 (388,000)

상·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최우수 (230,000)

상수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수기관 (50,000)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105,000)

전라남도 적극행정 경진대회 우수상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노력상 (20,000)

TV조선 경영대상, 브랜드경영부문 대상

통계업무 진흥 유공 우수기관

공모실적

(총사업비 : 백만원) / 200백만원 이상

2020 사회공헌활동 (207)

2020 문화재 야행 (360)

실감콘텐츠 제작 및 활용사업 (1,000)

지역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10,000)

2020 어촌뉴딜 300사업(울도) (12,342)

2020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구축(1,200)

목포 근대문화사길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2,200)

2020 간판개선사업 (700)

2020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2,700)

2020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추가) (300)

2020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204)

2021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500)

2020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266)

2020 남도음식거리조성사업 (1,000)

2020 지역특화형 동행 일자리사업 (200)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368)

4050 신중년 버스운송인력 양성사업 (200)

전기추진 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공급시스템 개발사업 (45,070)

2020 국민체육진흥기금 생활체육시설확충 지원사업 (1,430)

2020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목포청년잡고 등 3개사업) (712)

2020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기초프로젝트 2건) (440)

2021년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공모선정 "목포어묵 세계화 및 기반 구축 및 육성전략" (10,000)



친환경 전기추진 차도선



수산물 수출단지 조감도



대한민국 4대관광도시 목표 선포식

1897 개항문화의 근대유산을 미래 도약의 발판으로..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유 창 균

목포는 1897년 개항을 계기로 급속히 발전된 우리나라 몇 안 되는 근대도시 중의 하나이다. 개항과 더불어 만호동 일원에는 최초의 근대적 도시시설이 밀집하여 들어섰고 목원동은 일제강점기 목포의 중심 상권이 자리했으며, 양동 일원에는 해외의 선교사들이 들어와 각종 학교와 병원 등을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쉬 오르기 힘든 급경사지와 구릉으로 이루어진 서산동 일원은 근대화 시기 유입된 취약계층 인구가 밀집 거주하는 자생적이고 전형적인 서민 동네로 발전하였다.

불행이었는지 행운이었는지 선불리 결론지을 수 없으나 누가 보아도 분명한 것은 2020년 오늘까지 위와 같은 독특한 도시역사와 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어 근대 당시의 장소성을 오감으로 체험하기 충분하다. 마치 개발의 바퀴에서 벗어나 시간이 멈춘 듯 그대로 보존된 근대 도시 골격(공간구조)과 상징적 근대건축물, 오롯이 변화되지 않고 이어가는 동네 주민 삶의 모습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융성해온 지역민의 예술혼과 이에 대한 자부심은 목포 도시재생의 중요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

따라서 유달산 남동쪽 기슭에 자리하여 주거와 상업 그리고 문화가 공존하는 ‘목원동 도시재생 선도사업’을 필두로 목포의 근대와 미래가 공존하는 만호동 일원의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사업’ 그리고 유달산 자락에 목포항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경사지에 자리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목포 서민 삶의 흔적을 깊이 간직한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사업’이 맞물려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미래로 견인하기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일제강점기 일본영사관 전면 가로(사진 중앙 : 당시 일본영사관)



2020년 현재 근대역사관 전면 가로(사진 중앙 : 당시 일본영사관)

특히 올해는 위와 같은 노력의 성과를 인정받아 도시재생·마을만들기 우수사례로서 타 지역의 수범이 되었으며, 도시사회·도시경제·도시환경·지원체계 등 4개 부문 72개 지표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평가하는 ‘2020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앞으로도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자 후손에게 길이 물려줄 유산으로서 목포의 도시 품격을 높이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희망한다.

잊지 마.스.크

목포시보건소 감염병관리팀 박 태 은

나는 방년 20세, 꽃다운 9급 새내기 공무원이다. 7개월 가까이 수습기간을 거쳐, 올해 7월, 건강 증진과로 발령 받았다.

내가 맡은 첫 업무는 감염병관리팀 비상근무조에 편성되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일이었다. 야간 근무, 휴일근무와 함께 해외입국자 관리와 자가 격리자에 대한 감독 공무원 지정 및 요령 등을 안내하고 상담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다.

먼저, 해외입국자에게 공항에서부터 목포의 자가격리 장소까지 이동방법, 진단검사 관련, 자가격리 요령 등 모든 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궁금한 점에 대해 상담해 드리고 있다. 그리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확진자가 방문한 업소의 결제 자료와 CCTV 자료를 밤새 확인해 진단 검사 대상자를 추적하고, 밀접 접촉자를 분류하는 업무도 하고 있다.

코로나 1차 검사에서 보류 혹은 미결정 통보가 난 다음, 재검사로 최종 확진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아 재검사에 들어가면 보건소 직원들은 긴장을 하게 된다. 그리고 최종검사 결과 “음성” 통보 전화가 오면 그 순간 사무실은 올림픽 개최에 성공한 사람들처럼 환호하고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치기도 한다.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고 울컥한 순간이다.

특히 대응 업무를 하다보면, 역학조사관의 자가격리 결정을 수긍하지 못해 심한 욕설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려운 사정을 밝달라며 울먹이시는 분, 시골에 염소를 키워야 하는데 14일

동안 갇히면 어떻게 하나며 하소연하시는 분 등 마음으로는 공감은 되지만 도와드릴 방법이 없어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 역학조사와 전화 응대, 검사자 분류, 검체 채취 등 모든 일을 묵묵히 해내는 직원 분들을 보면 아직 1년도 안된 새내기의 눈으로 봐도 참 자랑스럽고 멋지다는 생각이 든다.

순천에 계신 부모님께서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공직자의 길을 걷게 된 나를 많이 대견해 하셨는데, 한번은 확진자 발생으로 목포까지 오신 부모님을 뒤로 한 채 긴급히 사무실로 복귀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많이 슬펐던 적이 있었다.

이처럼 확진자, 자가격리자, 그리고 시민들 모두를 만족시키는 게 어려운 현실이라 코로나 19 대응팀의 일원인 나의 하루는 힘들고 고되지만 많이 배우고 있으며, 이 시기가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끝으로 확진자의 동선을 따라 CCTV를 확인하면서 느끼는 점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분들이 많다는 것이다. 마스크 착용 여부에 따라 확진자, 밀접 접촉자, 그리고 능동감시 대상자가 될 수도 있는데 미착용 사례는 너무도 안타깝기만 하다. 마스크만 잘 착용해도 코로나 감염 예방할 수 있다. 우리 모두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잊지 말자 마스크~!



목포시 쓰레기 소각시설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는 2005년부터 추진했으나 잇따라 무산됐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매립률이 56% 정도였던 2005~07년이었습니다. 목포시는 부지까지 고시했으나 ‘폐기물 단순소각 지양 대신 에너지화’라는 당시 이명박 정부의 폐기물 정책에 따라 환경부에 의해 소각시설 추진이 취소됐습니다.

두 번째 시도는 2014~17년입니다. 목포시는 2016년 6월 100% 민간자본으로 플라스마 방식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업무협정을 체결했으나 투자업체 사정으로 인해 무산됐습니다. 그러면서 매립장은 계속 차올랐고, 현재 98%로 포화상태입니다.

이번 시도는 **세 번째**입니다. 더 이상 소각시설 설치를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2018년 9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접수됐습니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한국개발연구원에 적정성, 효율성 등을 검토·의뢰했고, 시가 직접 재정을 부담하는 재정사업 보다 민간투자사업이 더 적격하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이후 올해 9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 행정절차는 문제없이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시의회 의결 사항이 아닙니다.

-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10호에 따르면
 - 다른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은 지방의회의 의결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②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투법) 제4조제1호에 따르면
 - 민간투자 사업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 따라서 민투법에 따라 추진 중이며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목포시로 귀속되는 사회기반시설인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시의회 의결사항이 아닙니다.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① 「민투법」 제5조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 3백억원 이상의 국고지원사업은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②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8조 제2항에 따르면

-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은 주무관청(목포시)의 자체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총사업비 약 840억원(국비 357, 민자 483)이 투입되는 소각시설은 지난 9월 기획재정부 심의를 완료했기 때문에 목포시 민간투자심의위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목포시의회와 계속 소통해왔습니다.

- 소각시설 설치에 의회 의결 대상이 아니고, 민간투자심의가 생략 가능한 사업이지만 시의회에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논의해왔습니다.

□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에 대해 전라남도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 스토커방식은 기술 발달로 다이옥신 염려가 가장 적습니다.

소각은 스토커방식, 유동상방식, 열분해방식 등이 있습니다.

스토커방식은 국내 상당수 소각시설에 도입될 정도로 널리 사용되고, 시공실적도 많습니다. 2018년 기준 2백톤 이상 국내 소각시설 38개소 중 33개소가 스토커방식으로 운영 중입니다. 스토커방식은 20년 이상의 운전 경험과 다이옥신 제거 기술이 발달돼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소각방식은 모두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이 배출되지만 스토커방식이 가장 배출량이 적습니다.

성남시의 경우 스토커방식과 열분해방식 소각시설을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성남시는 스토커방식의 장점을 확인함에 따라 신설 소각시설에도 스토커방식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목포시는 스토커방식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다이옥신 발생 저감기술을 도입하겠습니다. 또 시민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소각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시민과 소통하면서 소각시설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14일 목포MBC를 통해 주민설명회를 중계했습니다. 분야별(폐기물처리, 환경 분야, 사업방식) 전문가를 추천받아 스토커방식 등 소각시설을 자세히 설명하고, 실시간 질의응답도 진행했습니다. 주민설명회는 목포시 유튜브, 목포MBC뉴스 유튜브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목포시는 법령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법적 필수절차인 환경영향평가 진행시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을 실시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소각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목포해상케이블카

명 기 환 시인

어디를 봐도 아름다운 풍경
기암괴석과 층층바위가 수려한 유달산을 지나
푸른 다도해를 안으니
낭만항구 목포다

국내 최장 3.23km거리
국내 최고 155m의 아찔한 높이의
목포해상케이블카에
몸을 맡긴다.

목포의 얼굴
유달산을 가슴에 품으며
다도해 푸른 절경에 감탄하고
작은 소망 바라본다.

이순신 장군이
108일 머물렀던
고하도로 가는
목포해상케이블카
크리스탈 캐빈 아래로
내려 보이는 형형색색 목포 시가지
하얀 포말을 내 품고 달리는 쾌속선
한눈에 펼쳐지는 웅장한 목포대교



저 멀리
아름답고 아름다운 천사대교는
우리를 반기며 사랑의 하트를 보낸다.

황금빛 저녁노을에
낭만 케이블카는 그네를 탄다.
붉은 꽃씨 뿌린 것 같은
천상의 아름다움
황홀함의 그 자체다

목포해상케이블카 저편
황금빛 낙조, 휘황찬란한 야경에
가슴이 요동친다.
이제 그대와 낭만을 즐겨보자

목포시정소식지 무료구독 및 작품모집 안내

▶ 구독신청 방법(택 1)

- 전화(061-270-8539) 신청
- 목포시청 홈페이지(www.mokpo.go.kr)에서 신청
홈 → 열린행정 → 시정자료실 → 시정소식지 → 구독·해지 신청
- ※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우편 발송 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작품 모집 안내

- 참여분야 : 목포 속 이야기(시·수필·미담·사진·일러스트), 독자소감 등
- 제출형식 : A4 1매 이내(12포인트)의 글 또는 이미지 파일(가로세로 픽셀 1,000 이상)
- 참여방법 : 우편(이름, 주소, 전화번호 기재)
- ☞ 우편 : 목포시 양율로 203, 목포시청 공보과 시정소식지 담당자 앞 (우 58613)
- ※ 지면사정상 내용이 수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작품이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 채택된 작품의 저작권 및 초상권 침해 등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출품자에게 있습니다.



“주전부리 3종 세트”

목화숨빵



빵반죽 안에 팔고물과 부드러운 크림이 가득 충전된 목화처럼 폭신한 빵

비파다쿠아즈



크림치즈와 목포의 상징 비파로 만든 잼을 이용해 당도를 줄여 남녀노소 거부감 없이 즐기는 프랑스식 디저트

FOOD TRUCK



맛김새우칩



목포의 수산물을 이용하여 반죽에 김을 섞고 건새우를 반죽 위에 올려 구운 스낵

주전부리 3종을 만날 수 있는 곳

- ① 코롬방제과점 (제과점)
061-244-0885 영산로75번길 7 3종(목화, 비파, 김새우)
- ② 대반동201 (카페)
0507-1437-8908 해양대로 59 2종(비파, 김새우)
- ③ 딸기네케이크 (제과점)
061-282-0008 하당로 78 1종(비파)
- ④ 더오아시스커피 (카페)
061-242-4463 용당로 29 2종(목화, 비파)
- ⑤ 달달청나라 (수제청, 수제간식판매)
010-9929-5767 연산백련로21번길 8-3 2종(비파, 김새우)
- ⑥ 빵굽는카페 (제과점)
061-247-0008 번화로 36-2 3종(목화, 비파, 김새우)
목포지역자활센터(현재 코로나19로 영업중단중)
- ⑦ 전남마을 공동체 신규창업(2월 오픈예정)
별별달달 사랑방 - 양율로 41번길 25 3종(목화, 비파, 김새우)
- ⑧ 체험나라M 전라남도 농업박물관 내 체험프로그램
010-3296-7520 녹색로 653-11 2종(비파, 김새우)

※ 판매장소는 추후 변동 될 수 있습니다.